



자료/한국리서치, 그림/김영훈 기자

‘시험보는 날’ 가장 학교에 가기 싫다

‘청소년들은 시험보는 날 가장 학교에 가기 싫어한다!’

서울리서치가 최근 서울의 고등학생 5백20명을 대상으로 ‘학교에 가는 것이 싫어질 때’를 조사한 결과 ‘시험보는 날’이 16.8%로 으뜸을 차지했다.

다음은 ‘아침에 일어나기 싫을 때’(12.0%) ‘보충수업을 할 때’(8.0%) ‘싫어하는 과목 수업이나 싫어하는 선생님의 수업이 있는 날’(7.2%) ‘성적표 받는 날’(7.0%) ‘숙제하지 않았을 때’(7.0%) ‘늦게 일어나 지각할 것 같을 때’(5.8%) ‘친구와 싸우고 난 뒤’(5.8%) ‘연휴나 휴일이 끝난 다음날’(3.4%) ‘날씨가 나쁘거나 너무 좋을 때’(3.4%) 차례였다.